

전남도, 여수석유화학산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잔걸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친환경 화학산업단지 전환 등 전략 논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박차

전남도가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자체, 화학산업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 3일 도청에서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발전과 함께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고부가·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여수석유화학산단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수 석유화학산단은 전남 산업의 주축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과잉에 따른 업황 부진

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각국의 환경규제와 탄소배출 제한 정책으로 기존 화학산업을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전략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은 기존 석유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바이오 플라스틱, 바이

오 연료 등의 하이브리드 산업과 친환경 화학산업으로 대표되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산업을 의미한다.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및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사업 재편 활성화, 정부 및 지자체의 위기극복 지원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과 같은 고부가·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

서 작성,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구축, 선도 기업 투자유치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 추가적인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건의할 예정이다.
소영호 전남도 전략산업과장은 “현재 석유화학산단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화학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도전금액 달성 현금 혜택 ‘내일도 또 Wa’ 이벤트

매일 1만5000명 참여 가능

광주은행이 오는 12월 11일까지 도전금액을 설정해 해당 잔액을 유지한 채 출석체크를 하면 매일 현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일도 또 Wa’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희망하는 도전금액을 선택하고, 최종 잔액이 도전금액 이상이면 성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전금액은 ▲10만원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등 3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도전 성공시 광주 Wa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 내에서 출석체크하면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 혜택은 도전금액에 따라 각각 11원, 33원, 55원이 매일 계좌로 제공된다.
매일 도전금액별로 선착순 5000명씩 총 1만 5000명이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대상은 광주은행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으로, 광주 Wa뱅크 앱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스틸스통장, 365파킹통장, 보안계좌, 시크릿계좌 등 특별목적계좌를 보유, 개설 이력이 있는 고객은 제외된다.
더불어 이벤트 기간 중 30일 이상 출석체크에 성공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착순 5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2잔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 Wa뱅크 앱, 광주은행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미경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최근 ‘업

전남TP, 전남형 스마트공장 보급 2차 모집

9월 13일까지...기초유형 40개사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전남지역 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확산사업’ 2차 지원기업 40개사를 추가 모집한다.
전남테크노파크는 2019년부터 지원 예산에 지방비까지 포함해 기업 자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2024년 전남형 스마트공장(기초단계) 보급 확산

사업 1차 모집결과 26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2차 모집을 통해 40개사 구축을 목표로 지원기업을 추가 모집하고 있다.
지원 유형은 기초단계 구축으로 신규구축과 동일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총 사업비 1억원 규모로 구성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6000만원이다. 접수는 9월 13일까지로, 신청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에서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감원, 30개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금융 취약계층 부당 추심 방지

금감감독원은 추석 명절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4일 “고금리·고불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점검 취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상의 상환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도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안내·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하세요”

올 3월부터 시행...전남 은퇴농 184명에 1억3000만원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4일 “올해 3월 시행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전남 소재 133ha 농지를 이양한 은퇴농 184명에게 1억 30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고, 농업인들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진>
사업의 가입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 중인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외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를 1인당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방식은 가입자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농지 매도 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의 은퇴직불금을, 매도 조건부 임대를 선택하면 농지임대료와 1ha당 매월 40만원의 은

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사업에 참여한 전남지역 은퇴농 184명이 10년간 수령할 은퇴직불금은 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전남지역의 경우 매도를 선택한 은퇴농은 평균 0.7ha의 농지를 이양해 매월 34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매도조건부임대는 평균 1.1ha 농지를 이양하고 매월 45만원과 연금, 임대료 등을 추가로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 가입자 중 4명은 최대 한도인 4ha의 농지를 이양해 매월 20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사업 시행 지침이 개정돼,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 연도에 이양한 농지에 대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 또는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010-962-0000)를 문의 및 상담하면 된다.
조영호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오랫동안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들의 은퇴 지원과 더불어 자연스러운 농업 세대교체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360’ 공개

차세대 인텔 AI 칩셋 탑재

삼성전자가 4일(현지시간) 차세대 인텔 인공지능(AI) 칩셋을 탑재해 ‘코파일럿+PC’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공개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최대 47 톱스(TOPS)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를 탑재해 AI업 호환성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장점을 지녔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 아크 GPU를 사용해 최대 17%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지원한다. 비전 스텀터가 탑재되는 등 개선을 거쳐 2X 디스플레이, 3K 수준의 고해상도, 120Hz의 주사율 등 선명한 스크린을 제공한다. 볼륨 120%의 색감과 명암비 컬러 볼륨은 각종 그래픽 작업부터 영화, OTT 시청 등을 용이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폰 링크’ 기능을 활용해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서클 투 서클, 채팅 어시스트, 실시간 통역 등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갤럭시 AI’의 다양한 기능을 PC로도 이용 가능

하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4개의 스피커와 함께 더 커진 우퍼가 장쾌한 풍부한 소리를 구현하며, S펜은 더 가볍고 얇은 디자인으로 이동성을 강화했다. 고용량 배터리는 영상 재생 기준으로 최대 25시간 사용을 지원한다. 인터넷 호환부분에서는 WI-FI 7을 지원해 더 빠른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졌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그레이와 실버 두가지 색상으로 제공되며,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9월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는 연내 출시 예정이다.
김학상 삼성전자 MX 사업부 NC개발팀장(부사장)은 “업계 리더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보이는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사용자의 일상과 업무를 더욱 쉽고 편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갤럭시 AI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AI PC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전 에너지 저장 기술 해외 진출 아일랜드 에너지 기업과 업무협약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아일랜드 전력계통 안정화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전력공사는 4일 “지난 3일 아일랜드공화국 기업인 ‘Lumclon Energy’와 에너지저장장치 신규 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국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전이 개발한 고속 충·방전이 가능한 에너지 저장장치인 슈퍼퍼캐시터 ESS 기술을 아일랜드 주파수 보조서비스 시장에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일랜드 전력계통은 높은 풍력발전 비중으로 인해 주파수 변동이 잦고, 폭이 큰 특징이 있어 한전의 슈퍼퍼캐시터 기술을 적용하기 적절하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NH농협은행 광주본부 금융사고 근절 ‘3행·3무’ 결의



NH농협은행 광주본부(본부장 박내춘)는 지난 3일 광주본부 회의실에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3행·3무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3행은 청렴·소통·배려, 3무는 사고·갑질·성희롱을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계기로 3행·3무 실천과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해 신뢰받는 광주농협 구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연합광주본부 제공

8월 수입차 등록대수 2만2000대...전년 동기 4.7% 줄어

지난달 수입차 등록 대수는 브랜드별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올해 8월 테슬라를 포함한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7% 줄어든 2만2263대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2만1977대)과 비교하면 1.3% 증가했다. 브랜드별 등록 순위에서는 BMW가 5880대를 판매하며 메르세데스-벤츠(5286대)를 제치고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BMW 등록 대수는 지난해 같은 달(6304대)과 비교해 6.7% 줄어든 반면, 벤츠는 전년 동기(6588대) 대비 19.8% 급증했다. BMW와 벤츠에

이더 테슬라(2208대), 폭스바겐(1445대), 렉서스(1355대), 볼보(1245대), 아우디(1010대) 등의 순으로 등록 대수가 많았다. 8월 베스트셀러 모델은 벤츠 E-클래스(2237대)가 차지했다. /연합뉴스

코스피	2580.80 (-83.83)
코스닥	761.75 (-28.62)
금리(국고채 3년)	2.931 (-0.050)
환율(USD)	1342.00 (+0.60)